

치 사

오늘 김영환 장군을 기억하는 호국추모제를 맞이하여 종단의 사부대중을 대표하여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중정예하께서 참석하시어 증명하심으로써 더욱 성대한 자리였습니다. 귀한 걸음 해 주신 김영환 장군의 유족들과 공군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회,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특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공군 창설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에 우리 공군 창설의 기틀을 다지고 최초의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한 김영환 장군을 기리는 사업이 더욱 뜻 깊습니다. 추모제를 준비하신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과 여러 소임자 스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고려대장경을 모신 법보종찰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정신과 문화를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김영환 장군은 6.25전쟁의 한가운데서 바로 이 해인사를 불태우라는 폭격 명령을 거부하여 군법 회의에 회부되는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결단과 희생정신으로 말미암아 해인사와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에 앞서 '법을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법등명자등명(法燈明自燈明)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의 법을 믿고 의지하며 깨달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처님 법의 정수를 모은 것이 대장경이며, 그중에서도 고려대장경은 내용과 정확성에서 비할 바 없이 뛰어난 인류의 놀라운 문화유산으로서 나라가 위난에 처했을 때 민족이 한마음 되어 조성한 호국의지의 집결체입니다.

고려대장경이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온갖 환난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보살님과 호법신중의 보이지 않는 가피 속에 무사히 전해져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위기인 6.25 때에는 이 시대의 호법신중 김영환 장군이 슬기와 용기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해인사에서 추모비를 세워 김영환 장군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향화를 받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김영환 장군이 군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지킨 것은 단순한 건물 몇 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불교 역사의 정화이기 때문입니다. 김영환 장군은 비록 34세의 짧은 인생으로 유명을 달리했지만 아름다운 이름은 해인사 고려대장경과 더불어 영원토록 이어갈 것입니다.

김영환 장군은 호법신장(護法神將)의 큰 원력을 발휘하였기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도 없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정토 세상에 왕생하여 부처님의 크신 깨달음을 성취할 것입니다. 오늘 추모제를 통해 김영환 장군의 큰 공덕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우리가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불기 2553(2009)년 11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